

일제강점기 ‘조선적’ 기독교의 모색과 최태용*

김 정 화**

머리말

Ⅰ. ‘조선적’ 기독교의 모색

1. 조선인 주도 교회의 설립
2. 조선적 신학의 수립 모색

Ⅱ. 최태용과 ‘조선적’ 기독교

1. 기독교 철학 수용과 영적기독교
2. 복음교회 설립과 교회관의 변화

맺음말

국문초록

일제강점기 조선 교회의 ‘자립화’ 운동은 선교사의 교권 독점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되어, 서구 선교사에 의해 이식된 정통적·보수적 신학에 저항하는 한편, 새로운 신학 사조를 수용함으로써 조선 교회의 정치, 경제, 신학적 자립 추구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의 것으로 이해된 기독교를 창출하려는 ‘조선적’ 기독교가 구상되었다.

조선 교회의 ‘자립화’ 운동은 선교사의 독점적 권한에 대한 저항과 지역 갈등 등 교회 내 제 문제로 인해 기성 교단에서 분립하여 독립 교회를 자처했던 반교권운동과 교권투쟁에 더해 선교사의 보수신학 역시 거부하며, 세계 신 사조를 받아들여 자유로운 신학적 분위기를 추구했던 반선교사운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45347).

** 전주대학교 HK+연구단 연구보조원/전주대학교 사학과 박사수료(kjh086@hanmail.net)

최태용은 반선교사적 흐름에서 선교사와 조선 교회의 신앙 부재를 비판하는 한편, 무교회주의, 자유주의 신학과 근대 철학 사조를 받아들이며 “영적 기독교”라는 독자적인 신학을 구축했다. 영적 기독교에서 신앙의 현재성을 강조함으로써 조선인의 의식으로 표출된 기독교가 성립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조선에 만연한 보수 신학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최태용은 기성교회로부터 이단시 되었다. 그는 10년간의 문서 전도를 중단하고 영적기독교를 펼칠 장으로 ‘기독교조선복음교회’를 설립했다. 교회 설립 이후 최태용은 교회 존립에 몰두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신학 연구를 중단되었고, ‘조선적’ 기독교에 대한 고민 역시 더 발전시키거나, 구체화하지 못했다. 그는 조선 기독교의 자립을 위한 극복 대상을 서구 선교사만으로 한정했고, 식민지 상황에 대한 의식 부재는 전시체제가 친일 협력으로 이어졌다.

주제어: ‘자립화’ 운동, 조선적 기독교, 최태용, 영적기독교, 복음교회

머리말

조선에 개신교 전래 이후 선교사의 교권 독점에 저항하며 교회를 분립한 최초의 일은 최중진(崔重珍)의 자유교회 사건이다. 조선 교회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갖던 선교사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된 자유교회 사건은 조선 교회 ‘자립화’ 운동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선교사에 대한 교권 투쟁은 점차 선교사가 이식한 보수 신앙에 대한 저항으로 확대되었고, 자유주의 신학, 신비주의 신학 등 세계적 흐름의 신학 사조를 수용하며, 조선 교회의 정치적 자립, 경제적 독립,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게 되었다. 이들은 새로운 신학적 입장에서 자유롭게 기독교를 탐구하면서, 조선 교회의 기독교가 서양에 의해 이해된 기독교임을 인식하고, 조선으로써 이해된 기독교의 창출을 모색했다.

‘조선적’ 기독교는 최중진 이래 전개된 반교권운동과 선교사의 독점적 권한과 독선적 신학 이식을 거부하는 반선교사운동이 조선 교회의 정치·경제

적 자립을 목표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서구의 기독교를 조선의 것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였으며, 여기에는 기독교의 ‘조선적’ 이해와 토착화의 고민이 혼재되어 있었다.

일제강점기 선교사에 대항하여 교회를 분리·독립한 사례를 자립화의 관점에서 인식한 연구로는 배귀득¹⁾의 논문이 주목된다. 배귀득은 조선 교회의 ‘자립’ 문제가 네비우스 선교정책에 의해 제기되었으나, 1920년대 말 대공황으로 인한 조선 교회의 경제적 위기와 1930년대 중반 신사참배문제와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으로 인해 자립문제가 구체화 되었으며, 선교사에게 독립한 조선적인 기독교의 필요성이 주장되었다고 말했다. 이는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촉발된 자립화 주장의 전개를 주목한 것으로, 기성 교회를 떠나 선교부의 지원없이 독립된 조선인 교회를 조직했던 실체적 자립 움직임에까지 관심이 미치지 못했다. 이에 기성 교회 밖에서 전개된 자립화 움직임에 대한 정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김정화²⁾는 1920년대부터 30년대 초반까지 전개된 자립론이 3·1 운동 이후 기독교의 보수화와 반기독교 운동, 농촌사회와 교회의 경제적 위기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며, ‘조선적 기독교’론자로서 김인서와 김교신, 최태용의 자립론을 비교·분석해 ‘조선적 기독교’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했으나 개괄적인 분석에 그쳤다.

최태용에 대한 연구는 여러 편 확인되지만,³⁾ ‘조선적’ 기독교의 관점에서

1) 배귀득, 「식민지기 조선 기독교회의 자립론에 관한 일고찰- 1930년대를 중심으로」, 『공존의 인간학』 2, 2019.

2) 김정화, 「1920~30년대 초 조선 교회의 자립론과 ‘조선적 기독교」, 『전북사학』 62, 2021.

3) 최태용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전인수, 「최태용의 조선적 기독교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39, 2013; 박중현, 「최태용의 복음교회 설립의 사상적 배경」, 『교회사학』 12, 2013; 류대영, 「최태용과 무교회주의: 김교신·우치무라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55, 2021; 박승인, 「최태용의 교회론의 재평가」, 『신학

최태용을 이해한 연구는 전인수⁴⁾가 주목된다. 전인수는 최태용이 조선 교회와 서구 교회, 민족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및 복음교회 설립을 설명했다. 그는 최태용을 비롯한 조선적 기독교 리더들이 조선 교회와 서구 교회의 한계를 인식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조선적’ 기독교를 구상되었으며, 최태용은 영적 기독교라는 새로운 신학을 창출했으나, 조선적인 형질이 없음을 지적했다.

‘조선적’ 기독교 연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조선적’ 기독교가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다. 전인수는 조선적 기독교를 “서구 교회로부터의 자치와 독립”, “조선적 신학”, “조선적 교회 수립”이란 기준을 통해 그 범위를 정리함으로써 조선적 기독교를 서구 교회에 대한 조선 교회의 정체성 정립이라고 말한 바 있다.⁵⁾ 그러나 전인수의 정리는 조선 기독교의 자립을 위한 극복 대상을 서구 기독교로만 한정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 교회가 자유로운 신앙 활동을 할 수 있는 독립적 주체로서 자립하기 위해서는 교회 내적으로는 조선 교회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서구 선교사에 대한 극복이 필요하며, 교회 밖으로는 식민지 현실에서의 독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조선 교회의 자립을 위한 극복 대상은 서구 선교사(기독교)와 일본의 식민지배라 할 수 있다. 또 내용이나 형태적으로는 조선 재래의 것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 교회와는 차별성을 가진 조선만의 독특한 조직이나 체계, 신경 등이 ‘조선적’ 기독교의 특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교회의 주체성 확립 및 교회의 형태나 조직, 문화 등

논단』 72, 2013; 박승인, 「최태용과 한국인 자신의 교회」, 『한국문화신학회 논문집』 9, 2006.

4) 전인수, 「1920-30년대 조선적 기독교 운동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5) 위의 글, 5-7쪽.

많은 부분에 ‘조선적’ 형질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고는 “식민지 조선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서구 혹은 일본 기독교에 동화되지 않은 채 조선적 형질을 가진 기독교”⁶⁾를 ‘조선적’ 기독교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최태용의 기독교 주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일제강점기 조선 교회의 ‘자립화’ 운동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초기 반교권 운동에서 시작된 ‘자립화’ 운동은 점차 선교사의 보수 신앙을 거부하고 자유주의 신학 및 기독교 철학을 받아들이며 독자적인 신학 체계를 수립하는 단계까지 전개되었다. 이 가운데 ‘조선적’ 기독교를 도출 가능성을 모색되었다.

다음으로 최태용을 사례로, 그의 교회 인식과 독자적인 신학 체계인 영적기독교(靈的基督教)의 정립 과정을 통해 ‘조선적’ 기독교의 모색과정을 살펴본다. 이후 1935년 설립된 복음교회와 복음교회 설립 이후 교회관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최태용의 ‘조선적’ 기독교론의 한계점을 살펴본다.

‘조선적’ 기독교에서 ‘조선적’의 개념 정립의 부재는, 일제강점기 ‘자립화’ 운동을 교회 내부의 선교사에 대한 저항운동 혹은 서구 교회에 대한 조선 교회의 정체성 찾기의 관점으로만 보게 했다. 이에 ‘조선적’ 기독교를 모색했던 제 인물의 개별 연구를 통해 각 인물이 인식했던 ‘조선적’의 개념을 도출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일제강점기 ‘조선적’ 기독교 연구에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향후 ‘조선적’ 기독교 연구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조선 교회의 ‘자립화’ 운동을 더욱 명확히 규명될 것을 기대한다.

6) 김정화, 「1920~30년대 초 조선 교회의 자립론과 ‘조선적 기독교」, 91쪽.

I. ‘조선적’ 기독교의 모색

1909년 최중진의 자유교회 분립으로 표면화된 반교권운동은 이후 선교사의 교권 독점 뿐 아니라 서북지역과 그외 지역에 대한 지역 갈등과 교회 내 제 문제로 인해 기성 교회에서 분리 독립하는 경우가 이어졌다. 선교사의 보수적 신학에 대한 저항은 1918년 김장호(金庄鎬)가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며 조선 기독교회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1920년대 중반 이후 신비주의, 자유주의 신학 등 세계 신학 사조를 받아들이며 더욱 본격화되었다.

본 장에서는 해외선교부로부터 정치·경제적 독립을 꾀했던 조선인 주도 교회의 설립과 서구 선교사의 보수적 신앙에서 자립하고자 했던 조선적 신학의 모색으로 나누어 조선 교회의 ‘자립화’ 운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선인 주도 교회의 설립

조선인 주도의 교회를 설립한 경우는 국내에서는 교권 투쟁 및 지역 갈등에 의한 경우가 다수이며, 그 외에는 만주지역의 선교 편의를 위해 초교파적 교회를 설립한 경우와 교파교회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장감연합의 교회 설립을 추진했던 사례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최초로 교권 독점에 저항하며 교회를 분립한 인물은 최중진이다. 최중진은 호남출신으로 원래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였던 테이트(L.B. Tate)의 조사(助事)로 활동했다. 그는 평양신학교 졸업한 후 테이트와 함께 전북의 태인, 매계, 정읍, 부안 지역을 담당했다.

그는 선교사가 조선 교회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것을 반발하며, 1910년 전북 대리회에 5개 요구사항을 제출하며, 선교사의 교권독점을 비판했다.⁷⁾

7) 최중진의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선교사들의 엄격한 입교인 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 둘째 선교사들의 선교 편의에 의한 지역 분할 거부, 셋째, 목회 지역에 중등

즉, 선교사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몰이해⁸⁾와 선교 기관 운영, 선교 구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교회가 전도 뿐아니라 구휼 등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는 한편, 선교사와 조선인 목회자 간의 형평성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중진은 장로교회를 탈퇴하고 자신이 관할하던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자유교회를 설립했다.⁹⁾ 최중진은 스스로 서양 선교사를 배척하거나, 장로교회에 시비(是非)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신앙 생활하기 위해¹⁰⁾ 자유교회 설립했다고 설립취지를 밝혔다. 비슷한 시기 평북에서 자유교회를 설립했던 차학연(車學淵)의 주선으로 일본 조함교회에 합류하기도 했으나, 결국 1931년에는 다시 전북노회에 참석하여 장로교회로 복귀했다.¹¹⁾

대구 남성정(南城町) 교회 목사 이만집(李萬集)과 마산 문창교회 목사 박승명(朴承明)의 교회 분립은 선교사의 독보적 권위와 지역 갈등이 혼합된 사례라 할 수 있다. 당시 평양은 장로교 신학교가 있는 지역으로 조선 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했으며, 보수적 성향이 매우 깊었다.

대구 남성정교회의 이만집 목사는 3·1운동 이후 기독교 내부에 깊어진

학교 건립 요구, 넷째, 교회마다 상구(常救) 위원 설치, 다섯째, 조선인 목회자의 형편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김기대, 『일제하 개신교 종파운동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7, 60-61쪽).

- 8) 선교사들은 당시 사회의 관습으로 남아있던 축첩과 제사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한 조선인 신자에 대해 세례를 거부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세례를 받은 신자들은 지역 공동체에서 단절되었으나,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엄격한 규정만을 고수하는 선교사에 대해 최중진은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裨貴得, 「1910년대 崔重珍의 自由教会とその周辺」, 『전북사학』 40, 2012, 191-194쪽).

- 9)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엮음,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상,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5, 280쪽.

- 10) 『大韓毎日新報』 1910.5.6.

- 11) 최운산, 「호남 최초 목사 최중진에 관한 선교적 고찰」, 총신대 선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30-40쪽.

보수화와 비정치화에 대한 갱신을 요구하며 선교사와 갈등했다. 당시 대구 계성학교(啓聖學校)는 평양계 교사들을 중심으로 종교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고등보통학교인가를 미루고 있었고, 학생들은 이에 저항하며 동맹휴학에 들어갔다.¹²⁾ 이만집과 남산 교회 목사 박영조(朴永祚) 등이 동맹 휴학을 일으킨 학생들을 옹호한 일이 노회로 전해지며 선교사들이 장악했던 경북 노회는 두 목사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만집은 경북노회의 탈퇴를 선언하고, 1923년 자치교회를 창립했다.¹³⁾

1928년 마산에서는 박승명이 마산예수교회를 설립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박승명은 마산 문창교회에 부임했는데, 민족주의 성향이 강했던 박승명은 교회청년들의 지지를 받았다. 당시 박승명으로 인해 교회 내 소장·노장층의 갈등이 심해지자 경남노회는 교회의 분열을 막고자 사직을 권고했고, 총회 조사위원회는 이 처리를 번복하는 일이 발생했다. 여기에 선교사들의 고압적 자세 등이 문제가 되며 선교사 배척운동이 일어났고, 박승명을 지지하는 서북계 총회와 반대하는 경남노회 사이의 분쟁의 기미까지 나타났다.¹⁴⁾ 이에 박승명은 자신의 지지자들과 문창교회를 떠나 마산예수교회를 설립했다.

성결교회에서도 선교사 교권 독점에 저항하며 독자적인 조선인 교회를 설립되었다. 1932년 동양선교회 성결교회의 한국인 신자들은 스스로 자립을 선언하고, 이듬해 총회를 조직했다. 1936년 교회 자치 운동에 적극적이던 목사 변남성(邊南聖)이 3대 총회장에 당선되자, 선교사 중심의 이사회는

12) 한국기독교역사학회 엮음, 『한국기독교의 역사』Ⅱ,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7, 196쪽.

13) 일제는 이만집의 자치교회 분립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외국인 선교사에 대항하며, 독립 교회를 설립하는 인물들을 주시하고 있었다.(김남식, 『일제하 한국 교회 소종파운동연구』, 1987, 41쪽).

14) 김기대, 『일제하 개신교 종파운동 연구』, 72쪽.

변남성의 총회장 당선을 인정하지 않고, 총회를 불법으로 선언하며, 변남성을 면직해 버렸다. 이에 변남성 등 목사 13명이 연합해 ‘하느님의 교회’를 창설하고, 단순한 신앙 운동을 내세우며, 제도권 교회의 복잡한 교리와 정치체제를 부인했다.¹⁵⁾

감리교 목사 변성옥(邊成玉)은 1935년 만주에서 ‘조선기독교교회’를 설립했다. 선교지역 분할협정에 따라 만주 역시 선교를 담당한 교파가 지역마다 달랐다. 실질적인 선교에서 교파별로 분할된 선교지를 지키기 어려웠고, 만주로 이주해온 조선인들이 원래 자기 교파와 해당 지역 교파가 달라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만주에 이주한 한국인 신자들을 위해 초교파적 교회인 조선기독교교회를 창설해 선교지역 분할정책의 모순을 극복했다. 그러자 만주연회의 동만지방 감리사 배형식(裵亨湜)은 교역자 임시회의를 소집해 이들을 신신앙파로 규정하고 이단시켰다.¹⁶⁾ 기독교신보는 이 자립교회에 대해 “과연 우리 사람들의 손으로 순전히 된 이 교회가 앞으로 잘되기를 두 손 들어 빌 뿐이다”¹⁷⁾라고 하며 응원을 보냈다.

한편, 선교사들이 이식한 교파교회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며, 기성 교회 내에서도 서구식 교파교회를 극복한 연합교회 설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윤치호(尹致昊)는 교권적 조직과 그 정체(政體)가 식민적으로 이식되는 방법에 불만을 가지고, 조선인 기독교 지도자 세력이 형성되면, 자체적인 결단과 선택으로 체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으며,¹⁸⁾ 1920년대 최창남은 조선의 교회가 서양교회의 모방이 아닌 우리의

15) 한국기독교역사학회 엮음, 『한국기독교의 역사』 Ⅱ, 200-202쪽.

16) 김기대, 『일제하 개신교 종파운동 연구』, 79쪽.

17) 『기독교신보(基督申報)』 1935. 7. 21

18) 민경배, 『교회와 민족』, 연세대학교출판부, 2007, 180쪽.

민족성 위에 세워진 교회여야 한다고 말하며, “오직 통일을 기하여야”¹⁹⁾ 한다고 주장했다.

신흥우(申興雨)는 1932년 장감연합의 초교파적 단체인 적극신앙단(積極信仰團)을 조직했다. 그는 조선 교회의 교파는 선교사들이 조선에 이식한 것이며, 우리 민족 또는 사회적 특수성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다.²⁰⁾ 그는 조선 교회의 토착화 문제에 깊이 고민하며, 기독교의 민중화, 조선적 교회 설립 등을 주장했다.²¹⁾

『기독신보』에서도 장감연합운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교파합동 문제에 대한 교계의 답안과 사론(社論)을 게재하고,²²⁾ “조선 교회의 6대운동”이란 주제로 연합운동에 대해 거듭 다뤘다. 여기서 『기독신보』는 신후승(辛厚承)의 논설을 인용해, 서양 선교사로 인해 아무 이해관계없이 동족끼리 불목(不睦)하지 말고 합동해서 조선 기독교회가 탄생하기를 바란다고²³⁾ 연합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일제강점기 장로교회의 최중진, 이만집, 박승명, 성결교의 변남성은 선교사의 절대적 권위와 독점적 권한에 대해 비판하며, 반교권운동적 차원에서 교회 개혁을 요구했으나, 면직·정직·출교·이단 정죄 등으로 처분을 받았다. 감리교의 변성옥의 경우 만주 지역 선교 편의를 위한 초교파적 교회를 설립으로 그 역시 이단으로 치리되었다. 이들은 제도 교회에서 분리·자립함으로써 선교사 중심의 조선 교회에 저항했다. 한편, 선교사의 교파교회 이식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비판하며 교파연합운동이 주장되었

19) 『진생』, 1929.01, 28쪽.

20) 『청년』, 1926.04, 11쪽.

21) 『기독신보』 1935.2.20; 김권정, 「일제하 신흥우의 사회 활동과 기독교 사회사상」, 『한국교회사학회지』 21, 2007, 26-30쪽 참고.

22) 『기독신보』 1928.12.31; 1929.1.9.

23) 위의 책, 1933.5.31.

다. 교파연합운동은 장로교와 감리교의 입장 차이로 결국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1930년 미 감리회와 남감리회에서 결의에 따라 남북으로 분리된 감리교가 완전한 조선 감리회로 독립하고, 독자적인 신경(信經)을 만들어 채택한 소귀의 성과만을 이루었다.

2. ‘조선적’ 신학의 수립 모색

조선에 파견된 선교사들은 대부분 정통적·보수적 신학을 가지고 있었으며, 조선 교회의 신학 역시 보수적 성향이 강했다. 일제강점기 선교사의 보수적 신앙에 저항하며 새로운 신학 사조를 받아들여, 신학적 갈등으로 인해 교회를 분립하게 된 경우는 조선 기독교회의 김장호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김장호는 내한 선교사로서는 드물게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던 커(W.C.Kerr)에게 신학적 영향을 받아 기독교와 성경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자 했으며, 선교사들의 보수적 신학과 신앙을 비판했다. 또, 서양 선교사들이 동양 고유의 미풍양속을 억압하고 성경에 근거도 없는 이상한 관습을 요구한다고 하며, 서양 선교사가 전해준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동양의 것을 버릴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²⁴⁾ 그러나 근본주의적 보수신학의 분위기가 강했던 장로교회는 1916년 김장호의 총대(總代) 자격을 정지시키고, 1918년에는 휴직 처분을 내렸고, 김장호는 자신이 맡고 있던 봉산 신원 교회를 중심으로 조선기독교회를 설립했다.²⁵⁾

김장호는 조선의 기독교가 서구에서 이식된 기독교라는 인식 아래, 서구 기독교와 차별성을 갖는 동양적인 기독교 수립을 주장했다. 그는 조선의 도덕과 선인의 유풍(遺風)을 바탕으로 기독교를 이해해 동양사람에게 맞는 기

24) 김장호, 『조선 기독교회소사』, 조선 기독교회전도부, 1941, 31쪽; 18쪽.

25) 김기대, 『일제하 개신교 종파운동 연구』, 63-67쪽 참고.

독교를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²⁶⁾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또한 식민지 상황에 대한 비판의 부재한 결과, 서구 기독교만을 극복의 대상으로 인지하여, 결국 친일로 경도되었다.

한편, 이용도는 3·1운동 이후 교회 침체기에 신비적 신앙운동으로서 조선 교회의 부흥 운동을 주도했다.²⁷⁾ 그는 그리스도와 내적 연합 즉 체험적 신앙을 통해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다.

이용도는 설교 가운데 조선 교회의 부정적 현상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하였으며, 백남주, 유명화 등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과 교류하고 유명화 강신극 소동에 휘말리면서, 주류 교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여기에 이용도를 중심으로 평양기도단이 결정되자, 장로교회 평양노회에서는 이용도의 신비주의에 기독교인들이 선동될 것을 걱정했고, 1932년 기도단을 강제 해산시키는 한편, 기도단과 이용도의 장로교 활동을 금지했다. 같은 해 제 22회 장로교 총회에서는 이용도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장로교회 출입을 봉쇄했다.²⁸⁾ 감리교회에서도 사문위원회를 소집해 그의 활동을 조사한 후 연회에서 그에게 휴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용도는 1933년 백남주, 이호빈, 한준명 등과 함께 예수교회를 창립했다.

‘조선적’ 기독교에서 이용도가 주목되는 점은 ‘조선적 영성’을 창출 시도했다는 점이다. 그는 서양의 특성을 물질(物的)이며, 현세적이고, 형식적, 외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동양은 영적이며, 내세적이고, 신비적이며, 내적이라고 정의했다. 서양인이 기독교에서 외적인 것을 다 파악해 현재의 기독교를 형성했으므로 이제는 동양인에 의해 신비적인 방면이 새롭게 발견하

26) 김장호, 『조선 기독교회사』, 1941, 30쪽.

27) 한국기독교역사학회 엮음, 『한국기독교의 역사』Ⅱ, 49쪽.

28)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 22회(1932년) 회의록」, 71쪽.

여 동양이 미완성된 기독교를 완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⁹⁾

즉 조선 교회의 여러 문제와 모순들이 서양 기독교의 한계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서양 기독교의 한계 극복을 위해 동양의 작용이 필요함을 주장한 것이다. 이용도는 반선교사나 서구 기독교의 거부가 아닌 선교사가 가르친 기독교의 미흡한 점을 찾고 이것을 보완하려는 시도에서 동양적 기독교를 구상했다.³⁰⁾

조선적 신학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과 관련해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內村鑑三)와 교류했던 일본 유학과 김교신과 최태용의 행적이 주목된다.³¹⁾ 김교신은 유학적 가풍을 가진 집안에서 성장해 일본 유학 중 기독교를 접하고, 우치무라를 통해 무교회주의를 배웠다.

김교신은 조선 교회가 서구 교회와 선교사를 모방한 교회³²⁾라고 비판하며, 조선 교회가 서구 기독교를 극복하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외 선교부의 경제적 원조에서 독립해야 한다고 말했다.³³⁾ 또 조선 사람 스스로가 “영의 양식을 뽑아낼 수 있는 자립 신자”가³⁴⁾ 되어 신학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예수의 복음으로 조선의 갱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순수한 기독교”인 성서를 조선에 주고, 성서 위에 조선을 세우는 성서입국(聖書立國)

29) 이용도 지음, 변종호 엮음, 『이용도목사전집』 3, 초석출판사, 1986, 29쪽.

30) 전인수, 『1920-30년대 조선적 기독교 운동 연구』, 46-47쪽.

31) 최태용은 서구 교회와 선교사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조선 교회를 개혁을 시도하는 한편, 선교사의 보수 신앙을 거부하고 자유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세계 조류의 철학을 수용하며 독자적인 ‘영적기독교’를 구축하며, 조선적 신학의 도출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기독교조선복음교회’라는 조선인 중심의 교회를 설립했으며, 이 교회는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어 ‘조선적’ 기독교 연구에 유의미한 연구대상이다. 때문에 최태용에 대한 분석은 Ⅱ장에서 후술하겠다.

32) 김교신 지음, 노평구 엮음, 『김교신전집』 1, 부키, 2001, 317쪽; 333쪽.

33) 김교신 지음, 노평구 엮음, 『김교신전집』 5, 부키, 2002, 131쪽.

34) 『김교신전집』 1, 76쪽.

을 지향했으며,³⁵⁾ 조선의 문화를 통해 성서의 진리가 체화되는 ‘성서 위의 조선’의 과정에서 서구 선교사가 전해준 기독교와 다른 “조선산(朝鮮産) 기독교”의 산출이 가능하다고 보았다.³⁶⁾ 즉, 성서와 조선을 두 축으로 ‘조선적’ 기독교의 가능성을 주장했다.

김교신의 조선산 기독교는 조선사람이 조선의 문화로 이해한 조선의 기독교로서, 서구에서 이식된 조선 기독교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며, 서구 기독교로부터 독립된 조선의 기독교를 수립함으로써 조선 교회의 주체성을 확립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자 개인의 성서 이해를 주장하고, 제도적인 교회의 필요성을 논한 바 없기 때문에 조선의 것으로 이해된 기독교라는 어떠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1920년대 국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회 내부에서도 기독교의 토착화에 관심을 가지며, ‘조선적’ 신학의 구축을 고민했다. 한국 최초의 신학자로 불리는 탁사(濯斯) 최병헌(崔炳憲)은 1922년 간행한 『만종일련(萬宗一攬)』에서 유·불·선 및 한국의 신종교를 포함해 동양의 제 종교를 망라해 정리하였으며, “종교의 진리가 천상천하에 하나이고, 古往今來에 둘도 없는 것”이라는 말했다. 즉 타종교에 배타적이거나 독선적 태도 없이 모든 종교[萬敎]가 하나로 성취된 것이 그리스도 복음이며, 기독교라고 주장했다.³⁷⁾ 최병헌은 한국의 종교문화적 풍토에서, 새롭게 이식된 기독교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려는 입장으로 동양의 전통 종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연결과 보완으로 인식하고자 했다.³⁸⁾

35) 위의 책, 33쪽.

36) 위의 책, 21-22쪽; 양현혜, 『윤치호와 김교신』, 한울아카데미, 2009, 183쪽; 전인수, 『1920-30년대 조선적 기독교 운동 연구』, 95쪽.

37) 이진구, 「한국 근대 개신교에 나타난 자타인식의 구조: 『만종일련』과 『종교변론』을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1, 2007, 138-175쪽.

38) 초기 한국 교인들의 타종교 이해는 일부 보수주의적 선교사들에게서 발견되는 동

서구식 교파교회의 문제점을 인식하며, 장감연합교회 설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조선적’ 신학이 모색되었다. 백낙준(白樂濬)은 1927년 연희전문학교에 부임하고, 1928년부터 문과 과장직에 있으며 국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인보(鄭寅普), 최현배(崔鉉培) 등과 교류했다. 국학에 대한 관심은 곧 ‘조선적’ 신학의 모색으로 이어졌고, 백낙준은 조선 교회의 형식을 만들기보다 “교회의 혼(魂)”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³⁹⁾

백낙준의 ‘조선적’ 신학에 대한 관심은 김인서(金麟瑞)에 의해 승계되었다. 김인서는 3·1운동과 관련해 수감생활을 하던 중 겪은 중생(重生) 체험으로 복음 전도를 결심하고, 1926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평양기도단을 통해 이용도를 알게 되었으며, 조선 교회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김인서는 조선 교회가 조선의 혼으로 만들어진 교회여야 한다는 백낙준의 말과 같이, 서구 기독교로 조선의 영(靈)을 움직이기는 어렵고, 조선인의 신앙에서 발현되는 조선인의 독창적인 신학, 조선인의 손으로 만들어진 독립의 신학만이 조선의 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⁴⁰⁾

앞서 말했던 이용도, 김교신, 최태용이 서구 기독교를 극복대상으로 인지했던 것과 달리 김인서는 제도권 교회를 존중하며 서구 교회를 “조선에 복음을 전해준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생각했다. 그러나 조선 교회가 점차 자립하고 나뉠의 신학을 갖는 것은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생각했다.⁴¹⁾ 때문에 앞서 언급된 반선교사적 입장의 교회

양종교에 대한 파괴적이고 독선적인 태도와는 달랐다. 한국 문화에 대한 몰이해는 선교사 2세대가 내한하는 1920년대 이후 더욱 두드러졌고, 미국의 서구식 기독교를 이식하려는 선교사와 한국적 문화풍토에 맞는 ‘토착 기독교’를 수립하려는 한국 기독교인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국기독교역사학회 엮음, 『한국기독교의 역사』 II, 158-159쪽.

39) 『기독신보』 1933.05.31.

40) 『신앙생활』 VII-10, 1935, 10쪽.

41) 김인서 지음, 정인영 엮음, 『김인서 저작전집』 1, 1973, 295-296쪽; 전인수,

분립 등 급진적인 변화는 옳지 않고, 서양 기독교가 오랫동안 서양식으로 토착화되었던 것처럼, 조선에도 기독교가 오랜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녹아 들며, 점차 조선의 특색을 띠는 기독교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다.⁴²⁾

조선 신학에 대한 고민은 서구 기독교를 조선에 그대로 이식한 선교사와 그들의 보수적 신학에 대한 저항에서 표면화되었다. 세계적 신학사조를 거부한 채 정통주의적 신학만을 고수하던 선교사와 조선 교회에 대한 반발하며, 조선 혹은 동양의 것으로 보완되거나 이해된 ‘조선적’ 기독교의 창출을 주장했다. 한편, 1920년대부터 시작된 국학운동의 영향을 받아 ‘조선적’ 신학의 주장이 등장했으며, 이 주장은 교파교회의 모순을 안고 있던 조선 교회 내 연합운동과 호응하여 조선적 신학의 모색으로 전개되었다.

II. 최태용과 ‘조선적’ 기독교

본 장에서는 최태용이 일본 유학을 통해 다양한 기독교 철학을 바탕으로 영적기독교론을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기성 교회의 배척을 받아 교회를 설립하게 된 과정과 교회 설립 이후 최태용의 교회관 변화를 서술하고, ‘조선적’ 기독교의 모색 과정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기독교 철학 수용과 영적기독교

1920년 최태용은 동경영어학교에 입학하며 첫 번째 일본 유학을 떠났다. 일본 유학에서 최태용은 우치무라의 무교회주의에 깊이 공감하며, “무교회주는 교회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가 마치 그 정신과 같은

『1920-30년대 조선적 기독교 운동 연구』, 189쪽.

42) 김인서 지음, 정인영 엮음, 『김인서 저작전집』 2, 1974, 328-329쪽; 230-231쪽.

복음을 잃어버린 때에 그런 인간적 형식뿐인 교회에서 반발하여 기독교의 본질적인 데, 즉 복음에 돌아가 선 입장⁴³⁾으로 이해했고, 교회와 독립된 신앙의 독립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⁴⁴⁾

최태용은 신앙과 교회의 구별이 없는 당시 기독교를 비판했다. 그는 일본 유학 중 “일본에 보낸다”⁴⁵⁾를 지어, 본연의 복음을 잊은 일본 기독교의 갱신을 요구했으며, 1923년 귀국한 이후 『신생명』과 개인 전도지로 『천래지성(天來之聖)』을 통해 조선 교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나갔다.

그는 조선 교회가 서구 기독교의 잘못된 인도로 인해 신앙과 교회를 동일시하게 되었으며, 그 때문에 조선 교회는 부패되고, 신앙 결핍의 상태가 되었다고 했다.⁴⁶⁾ 이에 조선 교회의 죽은 신앙을 해결할 방법으로 예수를 통해 무한히 자라는 영원한 생명 상태에 있는 신앙 즉, ‘생명 신앙’을 주장하며, 신앙 부흥(혁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⁴⁷⁾ 교회는 최태용의 주장을 급진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외면할 뿐이었다. 이에 최태용은 1927년 『천래지성』을 폐간했다.

1929년 1월, 최태용은 영과 진리로서 기독교를 규명하려는 목적으로 잡지 『영과 진리』의 발행하며, 다시 문서전도를 시작했다. 이 무렵 최태용은 두 번째 유학길에 올랐다. 그는 영적 기독교를 표현하는데, 기독교 학문이 필요함을 느끼고, 명치 신학교에 입학하여 과거와 현재의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영적기독교를 구체화 시켰다.⁴⁸⁾

43) 최태용 지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신학위원회 엮음, 『최태용전집』 3, 꿈꾸는 터, 2009, 409쪽.

44) 『최태용전집』 2, 254쪽.

45) 『최태용전집』 6, 18-70쪽.

46) 『최태용전집』 4, 74쪽.

47) 『최태용전집』 1, 234쪽; 『최태용전집』 2, 373-377쪽.

48) 『최태용전집』 2, 171쪽.

최태용은 신학이 사회와 함께 발전하며, 신앙을 명료하게 했다고 말한다. 그는 16세기 종교개혁으로 교회가 부정되었고, 근세의 비판학을 성경이 부정되었으며, 현대의 신학은 교회도 성경도 아니라 신약시대와 같이 경험의 기독교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⁴⁹⁾ 이에 “독립하여 그리스도를 경험한 기독교의 제창(提唱)”으로 영적 기독교를 주장했다.⁵⁰⁾

그의 독자적인 신학 체계인 영적기독교론은 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편에서는 영인 하나님은 진리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불변하는 영과 달리 진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므로 진리는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영’과 ‘진리(하나님의 언표)’의 원칙을 설명했다.⁵¹⁾

2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의 존재로서 육을 부정하고 영의 거듭난 존재이며, 육인 인간의 구원모델임을 밝혔으며,⁵²⁾ 3편에서는 신자는 성령을 통해 임하는 진리를 구체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늘 새로운 생명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⁵³⁾

최태용의 영적기독교가 ‘조선적’ 기독교로서 의미를 갖는 부분이 바로 진리의 현재성이다. 하나님인 영은 진리로서 사람에게 이해되며, 진리란 사람이 ‘현재’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이해하고 표현된다. 때문에 진리는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⁵⁴⁾

그는 현재 조선에 전래된 서구 기독교는 진리가 서구의 상황에 맞게 이해되어 표현된 것이므로 조선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며, 조선에서는 조선

49) 위의 책, 490-491쪽.

50) 위의 책, 125쪽.

51) 위의 책, 22쪽; 138-141쪽.

52) 위의 책, 327-331쪽; 414-415쪽; 429-430쪽.

53) 위의 책, 470-471쪽; 544쪽.

54) 『최태용전집』 3, 59쪽.

에 맞게 진리가 새롭게 표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진리의 현재성으로 인해 조선에서는 조선의 상황에 맞게 언표되는 진리 즉, ‘조선적’ 기독교가 성립할 수 있게 된다.

최태용은 진리의 학적 표현⁵⁵⁾인 ‘신학’에 주목한다. 신앙 부재의 조선 교회의 상태를 해결 방법으로 영적기독교이란 독자적인 신학체계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기성 교회는 여전히 최태용과 그의 지지자들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했는데, 최태용이 성서비평을 대폭 수용하며 기독교가 성경과 신앙을 동일하게 보는 오류를 지적한 것에 대해 그가 성서의 절대적 권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최태용과 기성교회의 갈등은 백남용(白南鏞)⁵⁶⁾이 경남 김해에서 이끈 집회로 인해 표면화되었다. 1931년 백남용이 부산시찰구 전도사의 초청을 받아 인도한 김해 집회로 인해 노회차원의 치리가 있었는데,⁵⁷⁾ 이듬해 7월 임시노회에서 최태용계 추종세력을 ‘이단’으로 규정했으며, 최태용을 추종하던 전도사들과 장로들을 ‘이단’과 ‘상회명령 불복’의 죄목으로 출교, 면직, 무기책벌 등의 처분했다.⁵⁸⁾

55) 위의 책, 161-162쪽.

56) 최태용이 일본에서 『영과 진리』를 통해 주장을 펴나가고 있을 때, 국내에서 여기에 호응하며 최태용의 주장을 선포한 인물이 백남용이다. 백남용은 강원도, 함경도, 경상도 등지를 다니며, 최태용의 영적기독교 주장을 설교했다. 최태용이 때때로 귀국해 집회를 직접 이끌기도 했지만, 최태용의 부재시 국내 집회는 백남용에 의해 주도되었다.

57) 1931년 9월 21일 백남용은 경남 부산시찰구 전도사들의 초청을 받아 김해를 방문해 집회를 인도했다. 1932년 제30회 경남 노회에는 소속 전도사들이 당회의 허락 없이 백남용을 초빙해 집회를 연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그 경위를 조사해 노회에 보고할 것을 명했다. 이듬해 제31회 경남노회 정기총회에서 당시 노회장이었던 주기철(朱基徹)은 “교회법을 따라 치리하되 시간을 두고 지도, 감독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약 6개월간 전도사들과 교회를 설득했다. 그러나 해당 교회들이 노회의 치리에 복종하지 않았다.

58) 이만열, 「주기철 목사의 신앙」, 『한국기독교와 역사』 9, 1998, 282-301쪽.

장로교 총회가 아닌 노회 차원의 이단 처리였으나, 문서를 통해 복음 전도를 이어오던 최태용과 그의 지지자들이 받은 영향은 매우 컸다. 노회의 처분이 정확히 내려지기 전 조사명령이 내려졌을 뿐이었으나 이미 최태용과 그의 지지자들은 집회 공간을 빌리는 일조차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태용은 “자신에게 기성 교회를 파괴할 의도가 없고, 교회의 부흥을 신앙의 부흥으로만 알며, 신앙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더 긴밀하고 생명적인 것으로 하자는 주장을 할 뿐”이라고 변론했지만,⁵⁹⁾ 조선 교회의 반응은 냉담할 뿐이었다.

1933년 5월 최태용은 두번째 유학을 마무리하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다. 그는 조선 교회의 신학이 이미 화석화되거나 신비주의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며, 생명적 신앙을 위한 건전한 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신학숙(神學塾)을 열 계획을 세웠다.

최태용이 계획한 신학숙은 기성의 교단와 기독교 계통에 얽매이지 않은 독립된 신학 교육기관으로, 현재의 사색과 사고로 진리에 확신을 가진 “복음의 투사”를 양성할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조선인의 영혼이 기독교를 소화, 주장하는 조선 신학의 출현, 완성의 기대도 있다”고 말했다.⁶⁰⁾ 최태용은 신학숙의 개설을 통해 조선의 현재에 맞는 기독교 진리의 표현 즉, 조선인에 의해 소화된 조선 신학의 구축을 통해 ‘조선적’으로 이해된 기독교를 기대했다.

신학숙은 경성 종로 6정목의 부활사 강당을 교사로 하여, 영어, 독일어, 희랍어, 히브리어, 자연과학, 철학, 역사신학, 계통신학, 성서신학, 성경학과 석의를 학과목으로 정하고, 중등학교 졸업자 이상을 대상으로 월 3원의

59) 『최태용전집』 3, 399쪽.

60) 위의 책, 356-357쪽.

수업료를 받고자 했다.⁶¹⁾

최태용은 『영과 진리』를 통해 몇차례 광고를 내어 신학숙을 위한 원조를 요청하는 한편, 신학숙에 올 학생들을 구했으나⁶²⁾ 결국 인력과 자금문제로 신학숙 경영은 무산되었다. 신학숙을 대신해 부활사 강당에서 강연회를 시작했으나, 참석 인원이 적어 10회 만에 중지하고 다시 진리사로 이전했으며,⁶³⁾ 연말 금마집회와 순회 집회 기간과 맞물리며 결국 진리사의 복음집회도 1회로 종료되었다.⁶⁴⁾

1934년 3월 최태용은 다시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 시기 『영과 진리』에 실린 최태용의 저작들을 보면, 술라이마허⁶⁵⁾, 리츨⁶⁶⁾, 칼 바르트와 브루너⁶⁷⁾ 신학 등 기독교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일본 유학을 통해 지난번 마무리하지 못한 철학 공부를 계속하며, 신앙과 철학을 결부시켜 철학의 범주에서 기독교 진리를 구명하고자 했다.⁶⁸⁾

최태용은 일본 유학을 통해 세계사적 조류에 부합한 연구 방법론을 수용하고 이를 통해 '진리'를 규명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이 개인적인 독특한 주장이 아닌 세계의 철학(신학) 흐름에서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던 시도로 이해된다.

이시기 최태용은 이처럼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던 바르트 신학, 현상학, 실존주의,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多郎)의 교토학과 등을 매개로 자신의 기존

61) 위의 책, 358쪽.

62) 위의 책, 367쪽; 383쪽.

63) 위의 책, 474-475쪽.

64) 위의 책, 486-488쪽.

65) 위의 책, 531-538쪽.

66) 위의 책, 547-554쪽; 『최태용전집』 4, 36-44쪽.

67) 『최태용전집』 4, 81쪽.

68) 『최태용전집』 3, 139쪽.

신앙론과 교회관을 새롭게 체계화했다.⁶⁹⁾ 특히 최태용은 바르트 신학을 통해 영적기독교를 재인식했다. 영적기독교에서 인간의 작용이란 경험적 신앙을 주장했던 최태용은 바르트의 초연신관(超然神觀)을 수용함으로써 절대 타자의 신과 그에 대비되어 죄인인 인간의 구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은총에 의한 구원관을 적극 동의했다. 바르트 신학을 통해 영적기독교의 근대자유주의 신학적 요소와 신앙에 대한 진화론적 인식, 영적 체험의 주관성 등의 한계를 자각하고 영적 기독교를 수정해 나갔다.⁷⁰⁾

그는 생명 신앙을 새롭게 표현하기 위해 키르케고르와 하이데거 등 실존주의적 사유를 적극 수용했으며,⁷¹⁾ 육인 인간은 “생명 있는 역사적·사회적 실재로서 항상 현재적으로 구체적으로 구원”되어야 한다는 구원 형식과 함께 항상 “구체적인 세상”에서 행하는 “구체적인 진리 행위”로서의 “신앙생활”을 강조했다.⁷²⁾ 이 사상들은 차후 기독교조선복음교회를 창립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최태용은 1920년부터 시작된 세 차례의 일본 유학을 통해 우치무라의 무교회주의, 기독교 역사와 철학 등을 공부했다. 조선 기독교의 신앙 부재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명신앙을 주장하며, 영적 기독교란 독자적인 신학체계를 구축했다. 진리의 현재성을 강조한 최태용은 세계 신 사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영적기독교에 적용하며, 영적기독교를 발전시키는 한편, 조선인의 영으로 이해된 기독교, 조선 신학의

69) 『최태용전집』 5, 100쪽.

70) 1937년 『영과 진리』 100호를 기념해 연재하기 시작한 “영적기독교의 과제와 그 현재적 개정”은 그간의 일본 유학으로 쌓은 신학적 역량을 총동원해 영적기독교를 수정 보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71) 홍정완, 「해방 이후 남한 ‘國民運動’의 국가·국민론과 교토학파의 철학」, 『역사문제연구』 23, 2010, 336-338쪽.

72) 『최태용전집』 5, 114-124쪽.

창출을 기대하며, ‘조선적’ 기독교의 가능성을 열었다.

2. 복음교회 설립과 교회관의 변화

최태용은 조선 교회에서 무교회주의자라고 비난 받았지만, 스스로 “비(非)교회주의자”라고 말했다. 그는 교회제도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며, 조선의 교회가 복음이 아닌 선교사 중심의 교회 ‘제도’에 매몰되어 가는 상황을 지적하는 의미에서 지금의 교회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⁷³⁾

1933년 경남노회에서 이단으로 치리된 후 최태용은 조선으로 귀국하여, 조선 교회의 개혁을 위해 노력하지만, 조선에서의 현실은 집회를 열 공간도 허락받지 못하고 있었다. 1934년 3월 다시 일본으로 건너간 후, 철학을 통해 영적기독교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했으나, 조선 교회와 자신의 상황에 대한 고민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최태용은 결국 일정한 교회없이 복음 전도자로 지내왔던 10년간 문서 전도를 중단하고, 새로운 교회 설립할 것으로 결정했다.

과거의 경로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을 배운다. 첫째, 우리의 전도는 만드시 교회의 시비를 산다. 우리가 원래 목표로 하는 바는 교회의 유익이었다. …일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여 우리와 사귀는 형제 때문에 교회에는 시비가 생기고, 우리의 전도의 길은 교회를 향하여 막혔다. 그래서 둘째로 금후 교회가 우리를 환영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우리는 결론치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차라리, 이런 역사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처할까? 나는 기성 교회를 버린다. 그리고 나는 미신자(未信者) 전도에 향한다.⁷⁴⁾

73) 『최태용전집』 1, 429쪽; 『최태용전집』 5, 73쪽.

74) 『최태용전집』 4, 251쪽.

1935년 10월 다시 귀국한 최태용은 김제 저산의 백남용을 찾아가 새 교회 설립할 계획을 세웠다. 또 군산을 방문에 군산의 『영과 진리』 독자들과 함께 “교회 공작 협의회”를 개최했고, 교회의 창립 필요와 향후 설립된 교회의 주된 개념을 공유했으며, 이때 ‘기독교조선복음교회’라는 명칭을 정했다. 이후 최태용은 북쪽 지방의 독자들을 찾아 교회 설립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고, 11월 27일 포교관리자설치계(布敎管理者設置屆)를 제출했다.⁷⁵⁾

1935년 12월 최태용은 소격동에서 기독교조선복음교회를 창립하고, 금마의 윤치병 목사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때 최태용은 기독교조선복음교회의 감독(監督) 직분을 맡고, 경성복음교회의 당회장으로 취임했다.

복음교회의 순수 조선인 교회로서의 성격과 대의명분을 뚜렷이 하기 위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표어”를 공표했다.⁷⁶⁾ 복음교회 표어는 복음교회의 창립 정신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첫째, “신앙은 복음적이고 생명적이어야 한다” 둘째, “신학은 충분히 학문적이어야 한다” 셋째, “교회는 조선인 자신의 교회이어야 한다”이다.

최태용은 복음교회가 인본주의나 합리주의 신비주의를 배격하며, 성경이나 성경의 문자에 얽매이는 근본주의와 메마른 신앙을 지양하며, 신앙의 생명성을 지향하는 교회가 되길 원했다.⁷⁷⁾ 이를 위해 신앙은 늘 현대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이는 학문적 노력을 위해서만 기독교 진리가 보다 정확하게 주장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또 조선 교회가 외국 선교부의 자선으로 이루어진 교회이며, 그로 인해 서구 기독교가 그대로 이식되어 조선 교회의 신앙이 죽어버렸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복음교회는 조선인 스스로가 자립하여 설립된 교회가 되어 생명적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75) 『조선총독부관보』 1940.05.02.

76) 『최태용전집』 4, 293쪽.

77) 위의 책, 293-296쪽; 전인수, 「최태용의 조선적 기독교 연구」, 88-89쪽.

복음교회는 최태용의 ‘조선적’ 기독교가 실현되기 위한 장이자, 그 자체의 의미를 가진다. 최태용 자신의 영적 경험으로 이해된 독자적인 신학 체계인 영적 기독교론을 주장했으나, 기성 교회의 정통적 보수적 신앙에 대한 저항으로 받아들여져 외면되었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 진리의 변화를 탐구함으로써 진리는 현재적으로 표현되어야 할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도리어 기성교회로부터 배척당했다. 이에 바르트 신학을 받아들여 영적 기독교를 수정·발전시키는 한편, 자신의 신학을 펼 수 있는 장으로 복음교회를 설립했던 것이다. 철저히 서양 선교부의 간섭이나 원조를 배제함으로써 복음교회를 조선 신학의 배양지이며, 온전한 조선인 교회로 만들고자 했다.

기독교조선복음교회는 1936년 1월 12일 제1회 총회를 개최했는데,⁷⁸⁾ 참석한 총대는 총 42명이었다. 여기서 백남용이 목사 안수를 받고, 10명의 장로를 추대했다. 13일 예산위원회가 열려 최태용이 제출한 3,000원의 예산안 중 2,340원이 결정되었고, 이 예산은 유급 직원 5명의 급여와 약간의 전도비로 책정되었다. 이후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YMCA 강당을 빌려 강연회를 열었고 첫날의 청중은 이백여 명이 모였다.⁷⁹⁾

제1회 총회가 끝난 뒤 최태용은 함북 명천, 함남 문천, 강원도 고성, 전북 군산과 금마, 삼례 등을 다니며, 집회를 인도하고 장로와 전도사를 임명했고, 9월에는 백남용을 저산과 군산교회를 담임으로 세웠으며, 영암복음교회를 새로 설립했다.

복음교회 제2회 총회는 금마집회기간에 개최되었는데, 각 교회에서 90명

78) 제1회 총회에서 복음교회는 최태용을 감독으로 선출하고, 감리교 식의 감독제를 채택해 운영되었다. 해방 후 6.25전쟁 중 최태용과 백남용이 죽자 1954년 9회 총회에서부터 종래 감독제를 유보하고 이사장을 선출해 교회 조직을 운영했으며, 1977년에 열린 19회 총회의 행정력 강화를 위해 총회장 선출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복음 교회 조직 구성과 운영은 기성 교회와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

79)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역사편찬위원회 엮음, 『복음교회 50년 역사』, 1985, 40-41쪽.

이 참석했다. 1937년 5월 소격동의 한옥 교회당에서 종로6가 부활사를 매입해 조선 기독교복음교회 중앙사무국과 경성복음교회를 이전했다. 5월 16일 수당식(受堂式)을 가졌다.⁸⁰⁾ 1937년 당시 전국 복음교회의 교세는 다음과 같다.⁸¹⁾

〈표1〉 1937년 기독교조선복음교회 현황

교회명	소재지	책임자	회원수			비고
			남	여	합계	
경성교회	경성부 종로 6정목 210	최태용	25	15	40	
저산교회	전북 김제군 공덕면 저산리 294	백남용	42	67	109	
지경교회	전북 지경역전	김한준	8	7	15	
군산교회	전북 군산부 둔율정 202	박지철	8	6	14	
월봉교회	전북 김제군 월촌면 월봉리	윤치병	16	10	26	
금마교회	전북 익산군 금마면 동고도리	김영록	20	43	63	
삼례교회	전북 삼례 역전	김영록	8	12	20	
이리교회	전북 이리읍 동산전 326	백남순	5	4	9	
영암교회	전남 영암군 영암면 서리	한상근	13	7	20	1936.09 설립
장전교회	강원도 고성군 신북면 장전리	홍순용	34	31	65	
고성교회	강원도 고성읍	유동민	8	6	14	
봉수리교회	강원도 고성군 고성면 봉수리	조복열	12	26	38	
명천교회	함북 명천군 상운면 상장동	서창제	16	45	61	
아간교회	함북 명천군 아간면 용암동	김영필	12	15	27	1937.03 설립
예천교회	경북 예천읍	김완식	4	6	10	
조직외 교인			20	20	40	
합계			251	320	571	

80) 위의 책, 44-46쪽.

81) 위의 책, 46쪽.

전시체제가 일제는 창씨개명, 신사참배 강요 등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한 정책과 함께 조선 기독교의 일본화에도 박차를 가했다. 1938년 제27회 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결의되었으며, 이듬해에는 국민정신총동원 예수교 장로회 연맹이 결성되었다. 교회 검열이 심해지고 예배를 방해했으며, 문서에 대한 검열도 심해졌다. 『영과 진리』의 경우 특별한 필화사건 등의 시비는 없었으나, 1939년 7월에 발간된 119호를 마지막으로 갑자기 절필되었다.⁸²⁾

전시체제가 최태용의 행적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복음교회 편찬 자료에 의하면 최태용은 일본의 패망을 예견한 열혈 애국지사이며, 교회 청년들을 위해 일제 협력이란 치욕을 무릅쓴 인물로 소개되고 있다. 친일 기독교인이 최태용을 찾아와 조선 기독교의 일본화에 앞장 서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한 사건, 일제 패망을 예견하고 일본의 유력자를 찾아가 조선자치 정부를 세울 것을 피력하다 요주의 인물로 찍혀 체포될 뻔 했던 것, 청년들이 강제노역에 동원되는 것을 막고자, 복음교회 장로에게 권유해 군수 물자로 취급되던 모형비행기(글라이더) 공장을 차리도록 하여 청년들의 강제징용을 피했다는 내용 등이 나와 있으나⁸³⁾ 근거는 찾을 수 없다.⁸⁴⁾

한편, 친일 잡지인 『동양지광(東洋之光)』에는 최태용의 친일 행적이 남아 있다. 1942년 최태용은 창씨개명한 복음유신(福音唯信)이란 이름으로 “조선 기독교회의 재출발”이란 글을 기고했다. 최태용은 “조선을 일본에 넘긴

82) 위의 책, 57쪽.

83)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 신학위원회 엮음, 『최태용의 생애와 신학』, 한국신학연구소, 1995, 145-147쪽.

84) 1939년 기독교조선복음교회 제3회 총회자료를 이후의 4~7회까지의 총회 자료가 유실되었으며, 해방 후인 1949년 8회 총회 회록부터 남아 있으며, 또 최태용 개인과 주변의 소식을 전하던 『영과 진리』 역시 1939년 절필함으로 인해 1939년 이후 복음교회의 공식적인 내역을 알만한 문서는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다. 구술자료를 통해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술과 시대 자료의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

것은 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을 섬기듯 일본 국가를 섬겨야 한다”고 하며, “조선 기독교회는 바르고 강한 종교를 낳기 위해 이 국토에서 재생하고 재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조선의 기독교는 미영(美英) 선교사가 남겨놓은 골동품으로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현재적으로 변모하고 재생하고 재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⁸⁵⁾ 즉, 일본과 조선의 관계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비유하여 절대적 복종을 강조하며, 일제와 식민지 상황을 극복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서구 선교사만을 조선 교회의 ‘자립’을 위한 극복 대상으로 인정한 결과 이 같은 일제 협력으로 흘러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복음교회가 조선인 주체의 교회를 표방하고, 기성 교회에 대한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복음교회 설립의 정당성을 내세웠던 것과 달리, 복음교회 설립이후 최태용은 『영과 진리』를 통해 복음 교회 설립 정당성을 표명하거나, 교회의 성격과 사명을 반복해 게재하는 등 조선 기독교의 개혁을 위한 비판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⁸⁶⁾

조선 교회의 생명신앙과 부흥을 부르짖으며, 서구 교회를 극복하고 ‘조선적’ 신학의 도출을 고민하던 최태용은 복음교회 설립을 기점으로 여러 변화를 보였다. 최태용은 복음교회 설립을 통해 기성 교회와는 다른 조선인이 주체의 새로운 교회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조직을 확대했다. 최태용은 이 과정에서 교회에 전념하기 위해 문서전도와 신학 연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영적 기독교론은 1937년 『영과 진리』 100호를 기념하여, 바르트 철학 등 새로운 철학 사조를 통해 영적기독교를 수정, 보완한 바 있으나, 사실상 복음교회 설립과 함께 영적 기독교의 발전은 멈춘 것으로 확인된다. 그 결과 영적기독교는 미완의 조선 신학으로 남게 되었다.

85) 『동양지광(東洋之光)』 1942.10.

86) 류대영, 「최태용의 교회론」, 『한국기독교와 역사』 35, 2011, 99-100쪽.

맺음말

일제강점기 선교사의 교권독점과 보수적 신앙, 근본주의 신학에 저항하며, 조선인 교회의 설립과 조선 신학의 수립을 주장했던 '조선적' 기독교는 조선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다가, 해방 이후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을 역사의 주체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서구 기독교에 대한 저항을 민족주체성 형성의 시도로써 인식하며, 한국교회사의 종파운동으로서 정리되었다.

1909년 최중진(崔重珍)의 자유교회 사건을 시작으로 서구 기독교와 서양 선교사에 대한 저항의 차원에서 등장한 자립화 운동은 일제강점기 조선 교회가 극복해야 할 타자의 존재를 인식하는 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조선 교회와 기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교회로 집중되어 일제식민통치라는 민족적·사회적 과제에 무감각했다. 선교사의 교권독점에 반대했던 교회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치리에 승복했던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각자의 목적과 목표는 달랐지만 극복대상은 서구 기독교와 선교사로 동일했다. 이들은 일제 식민통치를 섭리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각자의 관심에서 조선 교회의 모순을 해결하고 교회의 고난을 헤쳐나갈 방법을 고민했던 것이었다.

최태용은 조선의 기독교가 서구에서 이식된 기독교이며, 조선적으로 이해된 신학이 없기 때문에 조선 교회의 신앙이 죽어버렸다고 생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적기독교를 정립했다. 그러나 영적기독교는 완성된 신학 주장이 아니며, 진리가 항상 현재적으로 표현된다는 속성으로 인해, 새로운 시대 사조를 받아들이며 계속 보완되고 발전되어야 하는 신학체계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태용은 조선적 신학과 '조선적' 기독교의 창출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계속 기성 교회에서 배척당하고 이단으로 정죄

되며 신앙 개혁 운동이 좌절되자, 그는 문서 전도 활동을 그만두고 직접 교회를 설립해 영적기독교에 근거한 신앙 운동을 전개하고자 했다.

복음교회는 최태용의 목적에 따라 서구 기독교와 서양 선교부로부터 자립한 독립교회였다. 복음교회 설립 이후 최태용은 교회의 존립과 조직 확대를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으며, 그에 따라 점차 신학 연구에 할애할 시간은 부족해졌을 것이다. 이에 신학적 모색은 중단되었고, ‘조선적’으로 표현된 진리인 ‘조선적’ 신학, ‘조선적’으로 표현된 기독교인 ‘조선적’ 기독교에 대한 고민 역시 구체화 되지 못했다. 때문에 최태용이 말한 “조선인의 의식으로 표출된 기독교”가 어떤 것이며, 서구 기독교나 일본 기독교와 구별되는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밝히지 못했다. 더욱이 최태용은 『천래지성』과 『영과 진리』를 통해 기성 교회에 대한 강한 비판을 가하며, 교회의 개혁을 외쳤지만, 교회 밖의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점 역시 최태용이 주장한 자립론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논문투고일: 2021.12.12. 심사완료일: 2021.12.30. 게재확정일: 2022.1.17.)

참고문헌

〈자료〉

『大韓每日新報』

『基督申報』

『眞生』

『青年』

『東洋之光』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역사편찬위원회 엮음, 『복음교회 50년 약사』, 1985

김교신 지음, 노평구 엮음, 『김교신 전집』 1-7, 부키, 2001~2002

김인서 지음, 정인영 엮음, 『김인서 저작전집』 1-2, 신망애사, 1973~1974

김장호, 『조선 기독교회사』, 조선기독교교회전도부, 1941

이용도 지음, 변중호 엮음, 『이용도목사전집』 1-9, 초석출판사, 1986

최태용 지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신학위원회 엮음, 『최태용전집』 1-6, 꿈꾸는 터,
2009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엮음,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상, 2005

〈연구서〉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 신학위원회 엮음, 『최태용의 생애와 신학』, 한국신학연구소,
1995

김남식, 『일제하 한국 교회 소종파운동연구』, 새순출판사, 1987

민경배, 『교회와 민족』, 연세대학교출판부, 2007

전병호, 『최태용의 생애와 사상』, 성서교재간행사, 1983

한국기독교역사학회 엮음, 『한국기독교의 역사』 Ⅱ,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7

〈연구논문〉

김기대, 「일제하 개신교 종파운동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7

김정화, 「1920~30년대 초 조선 교회의 자립론과 ‘조선적 기독교」, 『전북사학』 62, 2021

류대영, 「최태용의 교회론」, 『한국기독교와 역사』 35, 2011

박종현, 「최태용의 복음교회 설립의 사상적 배경」, 『교회사학』 12-1, 2013

裴貴得, 「1910年代, 崔重珍の自由教会とその周辺」, 『전북사학』 40, 2012

양현혜, 「김교신의 ‘전적 기독교’ 신앙과 그의 기독교 사상」, 『한국기독교와 역사』 35, 2011

이만열, 「주기철 목사의 신앙」, 『한국기독교와 역사』 9, 1998

이진구, 「한국 근대 개신교에 나타난 자타인식의 구조: 『만종일련』과 『종교변론』을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11, 2007

전인수, 「1920-30년대 조선적 기독교 운동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최운산, 「호남 최초 목사 최증진에 관한 선교적 고찰」, 총신대 선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홍정완, 「해방 이후 남한 ‘國民運動’의 국가·국민론과 교토학파의 철학」, 『역사문제연구』 23, 2010

[ABSTRACT]

The Search for Koreanized Christianity in Japanese Colonial Era and Choi Tae-yong

Kim, Jeong-hwa

The Japanese colonial era Joseon Church's "self-reliance" movement began with resistance to missionary monopoly, gradually embraced liberal theology by resisting conservative orthodox theology delivered by Western missionaries, and sought the creation of "Chosun" Christianity in the 1930s.

The "self-reliance" movement of the Joseon Church can be classified as a type of establishing a Korean church or seeking independent Joseon theology. The anti-communist movement was mixed with regional conflicts that occurred inside the church, resisted the exclusive authority of missionaries, and tended to be separated and independent as an independent Korean church. On the other hand, Lee Yong-do, Kim Kyo-shin, and Choi Tae-yong built their own theology beyond the conservative faith of missionaries, and in this process, there were attempts to understand Christianity as 'Chosun'.

In the case of Choi Tae-yong, he studied Non-churchism, church history and Christian philosophy, and established his own theology, "spiritual Christianity." He emphasized the presentness of faith in spiritual Christianity and insisted on "Christianity expressed in the consciousness of Koreans," but failed to explain how "Chosun" Christianity can be implemented and in

what ways it differs from Western Christianity.

Meanwhile, Choi Tae-yong gave up the method of evangelizing in writing in 1935 and established an independent Korean church called the Christian Gospel Church. Unlike “Chosun-style” Christianity. In fact, the church left many regrets in the history of the Gospel Church, such as pro-Japanese to survive. In addition, the lack of interest in politics and social issues outside the church is also a limitation of Choi Tae-yong’s Christian theory.

Key words : self-reliance movement, Koreanized Christianity, Choi Tae-yong, spiritual Christianity, Gospel Church
